

선교지의 동반자인 연례 기부자들을 위한 미사와 오찬



2019년 4월 28일, 노틀담 수녀회 샬든 본원에서 2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샬든의 연례 기부자를 위한 감사 미사와 오찬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코디네이터인 마리 매닝 수녀, SND는 SND 세계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외국에 있는 같은 또래 학생들의 삶을 위해 지난 25여년간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었던 80개 이상의 학교와 종교 교육 프로그램의 엄청난 노력을 기렸습니다. 샬든 관구장인 마가렛 고만 수녀는 메릴린 러센과 러센 여사의 대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손주 여러명이 오하이오 린드허스트의 줄리 빌리야르 학교에 다니면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축복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메리 자넬 스트라첸스키 수녀, SND는 수년간 지속해 왔던 자신의 SND 기도 전화 활동에 대한 헌신과 개인화 노력을 특별히 인정받아 놀랐습니다. 수녀는 계속해서 기도 전화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